광주역~송정역 14km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 탄력

국토부 내년까지 철도 지하화 노선 선정…일부 구간 신속 추진
광주시, 20억 들여 광주선 지하화 용역…선도사업 선정 가능성

광주시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광주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가 앞으로 그동안 철길과 도로가 차지하던 지상 공간을 주거·산업·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대신 철도·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에선 관련 지원법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철길과 도로에 가로막히며 발생했던 도시 단절 문제,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 사업으로, 크게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하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까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첫 단추인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하화될 노선·구간을 비롯한 지상공간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거쳐 6대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지하화 노선도 확정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지방권을 고려해 수도권과 짝지어 패키지 개발하거나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일부 구간은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신속히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사업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현재로선 광주선을 비롯한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광주선은 이미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광주역~광주송정역 14km 구간 지하화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선도사업 지정 가능성이 그 어느 사업지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광주시 등의 건의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시민 안전 확보, 단절된 도시의 연결, 지상 철도부지 종합 개발 등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돼 광주선 지하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가 빠져나간 지상 공간에 대해선 역세권 상부공간은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의 노후화된 지역은 철도부지와 함께 통합적으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이익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정 기반이 된다. 국토부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며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에 철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철도간 네트워크도 새롭게 설계한다.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을 연계하는 최적의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을 구상하고 지하 통합 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큰 그림'이 마무리되면 각 지자체별로 사업 범위와 단계적 추진 방안, 재원 조달 계획 등이 담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국토부는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계획이 추진되지 않도록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고루 평가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염원 범도민 서울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민 간절한 외침…"국립의대 신설 확정하라"

국회서 범도민 서울결의대회
2026~2027년 100명 정원 건의
목포대·순천대 공동의대 설립 결정

민간단체 중심의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가 2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 범도민 결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범도민추진위원회의 허정·이주희·주상윤·강윤성 공동위원장과 최순모 고문을 비롯한 위원, 이병운 순천대 총장, 박정희 목포대 의대설립추진단장, 향우회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허정 공동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전남도민과 향우가 모인 것은 전남에 의대 유치를 바라는 뜨거운 열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기 위한 전남도민의 간절한 외침에, 의료계와 정부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순천대 총장, 목포대 단장이 차례로 나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지지를 선언하고,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극복할 방안으로 '도내 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범도민추진위원회는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건의문도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 등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의료계도 지역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확실히 바로 잡도록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2026~2027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전남도가 의대를 설립할 때 관련 대학과 협력해 캐나다 노슴(NOSM) 의과대학을 모델로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권 '공동 단일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전격 결정하자 김영록 지사는 환영문을 내고 "전남을 대표하는 두 대학의 통 큰 양보와 결단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흐름 속에서 반드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돼야 한다는 뜨거운 열망과 절박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SINCE 1952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설 명절, 전남 사회적경제 우수상품 최대 30% 할인

전남도가 설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특별할인 행사에 나선다.

행사에서는 도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50개 업체가 참여해 농수축산물·가공식품, 전통주류, 생활용품 등 1000여 우수제품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온라인 판매는 전남사회적경제쇼핑몰인 녹색나눔을 비롯해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 등 온라인몰 3개소에서 진행된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회원이면 녹색나눔몰에서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광주 송정역 팝업스토어에서 100여 개의 전남 사회적경제 설 상품 할인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착한소비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을 맞게 됐다"며 "설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경제 우수제품 소비를 진작시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도록 이번 특별 할인 행사에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때 지역인재 35% 의무화…국회 가결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전체 채용 인원 중 35%를 지역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성이 떨어져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정율성 논쟁 정부 평가 공정해야'…중국, 첫 입장 표명

광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던 작곡가 정율성(1914~1976) 기념사업을 올해 대폭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외교당국이 정율성이 항일운동에 참여한 것 등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평한 것은 처음으로, 이례적인 입장 표명 배경이 주목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광주시와 화순군 등이 잇따라 정율성 기념사업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입장과 관련한 중국 기자 질문에 "정율성 선생은 존중받을만한 저명한 음악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대변인은 "그는 조선반도(한반도) 남부 광주에서 태어나 일찍이 중국에서 항일 독립운동에 종사했고, 이후 조선과 중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며 중국 국적을 얻었다"면서 "다년간 한국의 관련 지방은 자발적으로 정율성 선생을 기념하는 시설을 만들고, 정율성 선생과 관련한 문화 교류 활동을 개최해 중한(한중) 우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나는 한 나라 정부가 그 나라의 역사와 관련한 대내외 유명 인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응당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없고, 국내 정치적 분쟁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와 민간 우호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중 양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신 직통전화 062)521-4109 용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 망 허성(461004-1*******)
2023년 9월 26일 사망
최후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60번길 9, 402동 101호(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
피상속인 망 허성의 법정상속인 허명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 하고자 광주가정법원 2023 느단 1231 상속한정승인사건을 신청하고 2024년 1월 19일에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한정승인권자 허 명
신고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375, 4동 101호(응봉동, 신동아아파트)

합병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대운가스프랜트 주식회사("갑")와 태아종합검사 주식회사("을")는 2024년 01월 25일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에서 정한 합병절차에 따라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서를 "을"의 주주들은 구주권을 본 공고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병 당사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과 ("을")의 합병비율 : 1 : 0.307041
- 합병기일 : 2024년 02월 29일

2024년 1월 26일
합병법인 "갑" 대운가스프랜트 주식회사
울산광역시 남구 용연로 131(용연동)
대표이사 최 병 만
피합병법인 "을" 태아종합검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1006호 (양평동3가, 양평동우림이비지센타)
대표이사 최 병 운, 이 제 한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